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강같이 흘러줄 이 있는가!

시(詩)는 무엇인가?, '왜 시를 쓰는가?' 라는 질문에 '에드거 앨런 포는 "시란 미(美)의 운동적인 창조이다". 매슈 아널드는 "시는 인생의 비평"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어왔다. 그렇지만, 시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란 어려운 문제다.

'시'의 출발은 언제부터일까? '시'의 출발은 노래였다. 원시시대 사람들은 기쁨이나 슬픔을 춤이나 노래로 나타냈다. 그리고 힘든 일이나 농사, 고기잡이가 잘되게 해 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도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부르던 노래에서 노랫말을 따로 분리해서 계속 발전시킨 결과 오늘날과 같은 시의 양식이 만들어졌다.

일상에서 '시'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시'는 '자연이나 삶에 대하여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글'이다. 많은 신문문예나 각종 문예지의 신인상 공모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시인'은 많다. 그들이 토해내는 '시'가 범람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그때 있었다/한때나



박여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평론가 · 문학박사

마 사랑일 때 있었고/한때나 이별 일 때 있었다/그때 맨 처음일 수 있고/그때 맨 나중에 일 수 있다/지금 어느 날 그때 되고/그때 어느 날 지금 된다/분명한 건 우리의 그때/소낙비 비림처럼 흩고 가듯/건성 아니라 영 원무궁이다/우리의 그때 지금 여기 며/어김없이 다가올 내일이다/ -'우리의 그때' 전문-

최재선 시인(한일장신대학교)의 다섯 번째 시집 『그대 강같이 흘러 줄 이 있는가』 인간과 문학사, 2020에 수록된 '우리의 그때' 전문이다. 이 시를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때'가 있다. 사랑할 때도, 이별할 때도, 처음일 때도, 마지막일 때도, 어느 날이거나 지금

이거나, 어김없이 다가올 내일에 대한 이야기인 '그때'를 풀어낸다. 그러나 이 시를, 이면적으로 바라 보는 감상은 다를 수 있다. 자신이 주어진 환경이나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시의 해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 인간적인 뿌리를 찾아가는 길이 바로 '시'이기 때문이다. '시'는 '인간적인 뿌리'에서 시작하여 사회문화의 전체의 보편적인 목소리를 찾기 위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이 나뉘는 경험은 독자와 공감하고자 하는 결과물이 바로 '시집'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깊이를 더해가면 서 공통의 위상과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시에 대한 감상과 다양한 해석은 독자의 몫이다. '눈에 들어온 시'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자. 그러면서, 한 편의 시를 독자의 '눈과 가슴에 담아주기' 위해 '수많은 언어의 조합과' 사투를 펼쳤을 시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시'의 위가감 속에서도 많은 '시'가 세상을 향해 경쟁하듯 양산되고 있다. 반면에,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해 잊혀져가는 수많은 '시'도 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구축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그때는' 있었다. '분명한 건 우리의 그때'가 '지금 여기며', '어김없이 다가올 내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강물처럼 흐르는 한편 '시'를 감성하여 나눌 수 있는 '그때'를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그때'는 정말 좋았어?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대에게 강같이 흘러줄 이 있는가? 미래가 가져다 줄 '우리의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알 수 없는 질문으로 오늘도 나는 혼란의 우주선에 탑승한다.

사건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알제리서 코로나19 첫 확진, 아프리카 대륙 긴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탈리아 남성과 접촉한 사람들과 이 남성이 탔던 항공기 승무원들이 26일(현지시간) 알제리의 한 병원에서 검사 받는 가운데 방호복을 입은 보건 관계자들이 이 병원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태국 대학가, 야당 해산 결정 항의 시위



26일(현지시간) 태국 수도 방콕 북부 파돔타니의 탐마삿 대학에 뿌라웃 친오차 태국 총리와 뿌라윗 왕수완 부총리의 사진이 걸려있는 가운데 이 학교 학생들이 대규모 민주화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시위는 태국 헌법재판소가 야당인 푸처포워드당을 해산하기로 결정할 때 대한 항의로 촉발했으며 태국 대학가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위가 퍼져나가고 있다.

사설

신천지에 대한 폐쇄와 집회금지 마땅하다

전북도가 신천지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행정 명령을 발동해 67곳의 시설 폐쇄는 물론이고 집회도 금지시키기로 한 것이다. 전북도의 그같은 조치는 마땅하다. 신천지가 코로나 19의 진원지임이 만천하에 거듭 거듭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천지가 그동안 보여온 행태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사죄를 해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을 터인데 자기도 피해자라고 코스트프레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일을 감추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

본보가 어제 전북도와 보건 당국이 잘하고 있다고 사실로 격려했는데 그제 하루 아침에 무색해져 버렸다. 도내에 확진 환자가 또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전북도가 신천지를 향해 칼을 빼든 것에 대해 당연함을 말하면서도 만사지탄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와 보건 당국을 나무라기보다는 격려하고 싶은 게 도민 대다수의 정서이다. 그 누구보다도 긴장하면서 직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있다. 근무자들의 긴장감은 일반인이 느끼고 있는 그것과는 유가 다르다. 전북도와 보건 당국에게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이유는 뚜렷하다. 그들이 불철주야 뛰고 있는 덕분에 시민들은 이만큼이라도 일상을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몸을 던져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민들은 불안한 중에도 일상을 누리고 있으나 근무자들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

비상 근무를 해오던 전주 시청의 공무원이 심야 귀가 후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신천지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던 총무과 7급 행정직 신창섭 씨가 바로 그이다. 주변에서는 파로사일 거라는 정언이다. 그는 1977년 생으로 젊은 나이이다. 얼마나 일이 고되었으면 그리 됐을까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들은 관계 공무원들의 요구에 협조하는 정신이 절실하다. 정말이지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음과 고통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기업 유치의 성과 일자리로 말해야

기업 유치의 성과를 일자리로 보여줘야겠다. 무슨 사업을 추진하던 그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은 다른 광역 시도보다 낙후돼 있다. 그 까닭은 일자리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그 때문에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지고보면 저출산 문제도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전북도는 최고 관심사를 일자리 창출 쪽에 두겠다고 반복해 천명한 바 있다. 전북도는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갈수록 관철은 일자리인 정규직은 좁은 문이 되고 있다. 그나마 기간제 일자리도 줄고 있다는 불만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점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작업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말로만 해서 안된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에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간제같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바라는 바는 한결같다. 전북도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지역 성장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보면 암담하기 그지 없다. 지난해 도내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전북도는 도내 기업들의 현황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코로나 19 때문에 도내의 많은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동 중단을 해야겠네 구조조정을 해야겠네 등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럴 때 전북도는 무엇인가를 보여줘야겠다. 강조해 말해왔던 지역 발전 약속이 식언이 되지 않게 하려면 말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